

‘文不如長城’ 장성 출신 문인들 작품 집대성

〈학문으로는 장성만한 곳이 없다〉

장성문인협회, 문학·역사·의미 담아 ‘장성문학대관’ 출간

하서·노사·김우진·오영재 등 150여 명 작품 500여 편 실어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 “글과 학문이 장성만 못하다”라는 뜻이다. ‘문불여장성’은 장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사로 지역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말이다.



장성은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고장이다. 일설에는 주위에 입암산성과 고창산성 같은 긴 성이 많아 ‘장성(長城·긴 성)’이라고 칭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 탓에 조선시대에는 손꼽히는 유학자들이 유배를 오기도 했다.

도문학의 대부 박흥, 복한 최고의 계관 시인으로 평가받는 오영재, 한국 수필문학의 태두 이상보, 한문학의 국보적 존재 변시연을 비롯 8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다 가신 ‘장성문학의 아버지’ 김병호 등 다양한 장르의 문인들이 망라돼 있다.

또한 당대의 대표 유학자들은 학문을 논하고 교분을 나누었다. 필암서원(하서 김인후), 고산서원(노사 기정진), 봉암서원(망암 변이중)은 장성의 학문이 얼마나 깊고 선비 정신이 강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근 장성 출신 문인들의 대표적인 작품과 활동을 집대성한 책이 출간돼 화제다. 장성문인협회(회장 박형동)가 발간한 ‘장성문학대관’(세종기획)은 ‘문불여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물로 평가된다.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의 문학작품을 모아놓은 책자가 몇 군데 있지만 다양한 내용과 역사, 의미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것은 장성문학대관이 처음이다.

책에는 150여 명의 작가와 500여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근대문학은 1908년 이후 출생한 문인들의 작품 그리고 조선 시대는 유학자들의 평론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수록된 문인들의 면모도 다채롭다. 장성문불여 앞자리에 놓이는 하서와 노사, 한국 신문학을 연 김우진, 남



‘장성문학대관’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문인과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성문인협회 제공>

작가 서영명, 시인 최중천, 대한민국예술원장 김정옥, 동화작가 김희숙·이종은, 소설가 송방순·오승재, 아시아문화수도 기획단장 이영진 시인, 수필가 이정신 등 70여명의 출향 문학인들에 대한 자료가 실려 있다.

그러나 책을 발간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작고하거나 출향한 문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찾아내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거나 인터넷을 뒤졌다. 평론가나 문인들에게 귀동냥을 하기도 했고 작고한 문인들의 경우 수차례 자료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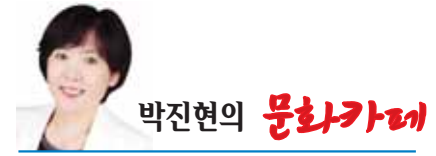
당초 편찬기획은 2000년대 초 장성문협 정준자 전 회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장성문학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문학 자료가 없어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뜻을 같이하는 문인들이 의기투합해 문집 발간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발간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2013년 박형동 현 장성문협 회장이 취임하면서 ‘장성문학대관’ 발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장성군과 의회의 협력으로 총 8100만원의 재원이 확보 되었으며, 지역 학계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12월 출판(700페이지 양장본에 3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박형동 장성문협 회장은 “어렵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수록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일하게 된다”며 “‘장성문학대관’이 장성의 역사와 출향작가들의 작품, 문단활동에 대한 평가까지 알뜰히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회가 지난달 27일 장성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한국문인협회 문춘지 이사장, 이개호 국회의원, 유두서 장성군수, 200여 명의 문인,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정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2010년 여름, 일본 오카야마현 우노항 선착장은 수많은 여행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명숙미술관’으로 불리는 나오키마 지추(直島地)미술관으로 가기 위해서다. 약 20분 정도 배를 타고 도착한 지추미술관 입구에는 마치 은행장구처럼 대기표를 받은 사람들이 복닥복닥 서 있었다. 미술관 측은 쾌적한 관람을 위해 하루 평균 10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지만 이날 만큼은 예외였다. 평소에 비해 3~4배 정도 늘어난 관람객들을 되돌려 보낼 수 없어서였다.

이처럼 관광객들이 밀려든 데에는 ‘제1회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오고 있는 정씨는 “재단은 사립미술관이 행사기간 동안 ‘광주비엔날레 기념 전시회’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지는 제안조차 ‘고품격 비엔날레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며 재단의 폐쇄성을 꼬집었다.

이날 정씨의 하소연은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일그러진 궤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실 재단은 지역과의 소통 대신 글로벌 가치에 무게를 두고 철저하게 ‘그들만의 잔치’를 향유해 왔다. 비엔날레에 등을 돌린 예술가와 시민들이 늘어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박양우 호’ 비엔날레가 通하려면

(이하 트리엔날레)가 있었다. ‘버려진 섬을 예술의 낙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창설된 트리엔날레는 일본 시코쿠 세토나카이(瀬戸内海)의 나오키마, 데시마 등 7개 섬에서 3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 국제미술제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에도 70만 명의 관람객을 섬으로 끌어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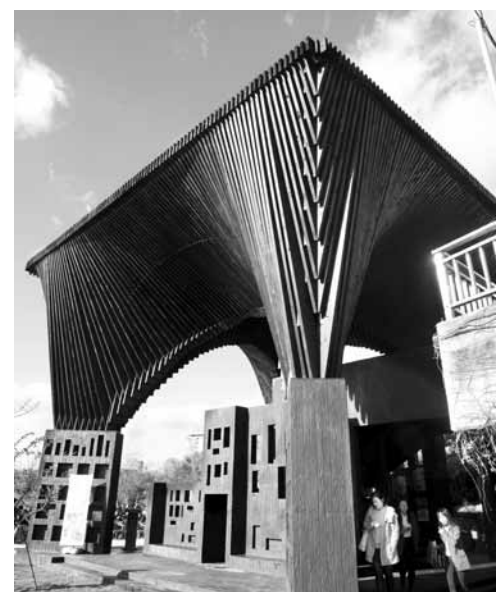
하지만, 트리엔날레의 최대 성과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이었다. 행사기간 동안 주민들과 참여작가들은 마을 곳곳에 예술품을 함께 제작해 설치하는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다. 또한 오카야마현과 가가와현의 미술관과 호텔, 식당 등에는 지역작가와 초·중·고 학생들의 작품이 내걸렸다. 전시장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만난 트리엔날레는 또 다른 감동이었다.

기자가 새삼 오래전 ‘그날’을 떠올린 건 최근 광주비엔날레 혁신안 공청회에서 쏟아낸 서양화가 정송규씨의 한 말(?) 때문이었다. 8번째 무등현대미술관을 꾸려

최근 광주비엔날레가 전문철 감시원장을 이사장으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전면 쇄신에 들어갔다. 감사원장 출신인 전 이사장과 예술경영 및 문화행정계 정통한 박 대표의 투톱체제는 중앙정부와의 매개를 통한 예산확보와 ‘큰 틀에서’ 지역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전문철·박양우 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 등 환골탈태의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매번 ‘무늬만 개혁’으로 끝났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껍데기 보배다. 재단은 7대 혁신안을 실행하는 단계별 로드맵과 추진동력, 그리고 내부 쇄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될 일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폴리 II ‘광주전 독서실’



‘탐구자의 전철’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 폴리 도슨트’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이 5일까지 ‘2015 광주 폴리 도슨트’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한국어 5명, 영어 2명, 중국어 1명 등 모두 8명으로 올해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 미술, 디자인, 문화 등을 전공한 사람과 관련 경력을 우대한다.

광주 폴리 도슨트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폴리에서 열리는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6일 최종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도슨트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 및 작가, 작품 설명과 함께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1회당 3만50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http://www.gwangjubienale.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08-426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입주 작가·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6일까지 ‘2015 미디어아트 레지던시’에 입주할 작가 및 단체 6개팀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과 인원은 미디어아트 5팀, 스토리텔링 또는 전시 기획 1팀이다.

입주 작가들에게는 스튜디오 및 사무기구, 창작지원금, 레지던시 관련 전시 및 도록 발간 비용 등이 지원된다. 단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작가

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입주 작가들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교육·강좌, 미디어아트 조형물 만들기, 개인전, 주민연계 미디어아트 교육,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 참가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문의 062-670-79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